

인 사 말

인천5.3민주항쟁이 일어난 지도 벌써 30년이 되어갑니다. 그간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어쨌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장, 교육감까지 내손으로 뽑을 수 있게 되는 등 괄목할 만한 민주주의의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민주화는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테러 방지와 안보라는 이유로 개인의 사생활을 국가 기관이 마음대로 뒤져보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는 계속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다시 저 70년대, 80년대의 군사독재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우려됩니다.

여기 인천5.3민주항쟁 발발 30년을 되새기는 토론회 자료집을 엮어냅니다. 해마다 계속되어온 토론회이지만, 30주년을 맞아 올해도 또 하는 것은 인천5.3민주항쟁에 대한 평가가 아직 일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5월 3일 인천 주안 시민회관 사거리 일대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은 분명 민주화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인천5.3민주항쟁이라 명명합니다. 그러나 5.3민주항쟁은 그 격렬했던 만큼 어두운 그늘도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소화하지 못한 채 내뿜은 격한 구호들은 대중과의 거리를 그만큼 더 멀리했고, 또 자기만이 옳다는 소아병적 사고는 각자 끼리끼리 모여 자기 이야기만 하는 난맥상을 노출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아직 통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은 5.3민주항쟁에 대한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지만, 또한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다시 또 그 길을 걸어갈 후배들을 위한 거울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가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뚝 설 수 있으려면 아직 민주

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 길을 가고자 하는 후배들이 30년 전 선배들의 행동을 거울삼아 이어갈 것은 이어가고 극복해야 할 것은 극복함으로써 이 나라를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뚝 세워주길 간절히 바라며, 이 작은 자료집이 그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30주년 인천5.3민주항쟁 계승대회 조직위원장 이우재

인천 5.3민주항쟁 30년을 되돌아보다

일시 : 2016년 4월 29일(금) 오후 2시~6시

장소 : 주안신타공원(옛 시민회관 터) '틈 문화창작지대' 1층 다목적 홀

인천 5.3민주항쟁 30주년을 맞이하여 그 역사적인 의미를 되돌아보고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인천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하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내용

- 주제 발표 : 서중석(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김동춘(성공회대학교 교수)
- 좌 장 : 최원식(인하대학교 명예교수)
- 토 론 자 : 김명인(인하대학교 교수)
윤대영(서강대학교 교수)
전희식(전 인노련 조직원)
김중현(전 인사련 조직원)



주최 : 인천광역시 남구청, 제30주년 인천5.3민주항쟁계승대회 조직위원회
주관 :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문의 032-441-0288)

목 차

[발제문 1]	인천 5.3사태의 평가 - 대중성과 군부독재 9	
	타도 문제를 중심으로	
	서중석(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발제문 2]	한국 민주화 운동에서 5.3 인천 민주항쟁 27	
	-지금의 시점에서 본 여러 쟁점들-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토론문 1]	인천 '5.3민주항쟁'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37	
	토론문	
	김명인(인하대학교 교수)	
[토론문 2]	베트남으로 보는 '5·3' 43	
	윤대영(서강대 교수)	
[토론문 3]	'5.3 인천 민주항쟁'을 어떻게 보아야 51	
	하나?	
	김중현(전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토론문 4]	욕망과 소비의 이중구조 55	
	전희식 (인천노동운동연맹 조직원)	

발제1

인천 5.3사태의 평가

**—대중성과 군부독재 타도 문제를 중심으로—
서중석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5·3인천사태 평가

- 대중성과 군부독재 타도 문제를 중심으로 -

서중석(성균관대 사학과 명예교수)

1.

지금부터 30년 전에 일어났던, 광주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가두투쟁이었던 1986년 5·3인천사태에 대해서는 당시부터 여러 평가가 있었다. 군사파쇼정권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는 평가도 있고, 과감히 혁명적 투쟁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 군사독재정권의 억압적인 정치적 상황과 노동운동의 흐름에서 독자적인 정치적 목소리를 내려고 했다는 평가도 있다.(김지선) 후자와 유사한 주장이지만, 5·3인천투쟁을 통해서 민주변혁운동이 제도야당으로부터 분화되고 독자적인 실체로서 전면에 등장했다는 평가도 있다.(조현연) 이러한 평가는 민족민주세력의 힘을 유감없이 과시해 민주화운동사에서 한 획을 그었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그때까지 싸움다운 싸움 한 번 한 적 없는데, 5월 3일 인천에서 여한 없이 싸워봤다는 소리도 있다. 당시 민청련은 5·3인천집회는 몇 십 년 만에 반외세 민족자주화를 선언한 대중 집회였고, 민족민주운동이 보수야당세력에 대해 차별성의 획을 분명히 그어내고 자기 주체선언을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날 투쟁 형태에서는 난맥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5·3인천사태는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선명히 모습을 드러낸 이념투쟁이 혁명적으로 분출되었다. 당시 운동권은 수도권에 많았는데, 수도권 운동권이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자리에 모여 각각 따로 집회를 갖고 자신의 혁명적 목소리를 격렬히 쏟아 내고 과감히 싸웠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이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5·3인천투쟁은 2·12총선 이후 고양된 민주화운동-개헌투쟁을 한 단계 더 높이겠다는 의욕이 강했으나, 이날 이후 군부독재정권은 민주화운동-개헌투쟁을 분열시키고 무력화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반격을 가했다. 그 반면 학생 재야운동권 노동운동세력과 야당은 큰 타격을 입고 퇴각했고 대중성을 그해 연말까지 회복하지 못했다. 5·3인천사태는 역전의 계기가 된 것이다.

앞의 문단에서 언급한 바 있는 평가를 가지고 말하든 뒤의 문제점과 역전 현상을 가지고 말하든 5·3인천사태는 민주화운동-개헌투쟁에서 하나의 분수령이었다.

이 소론에서는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5·3인천사태를 들여다보려고 한다. 하나는 민통련이 1985년 하반기에서부터 5·3인천대회에 이르기까지 견지하고 있었던 개헌투쟁노선에 5·3인천사태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중심에 놓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민통련은 1985년 11월 20일 발표한 민주헌법쟁취위원회결성선언문과 그 이후 나온 여러 주장에서 개헌은 군사독재와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라고 하여, 군사독재 퇴진 또는 타도에 의한 민주헌법 쟁취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이 소론에서는 5·3인천사태가 군사독재를 퇴진시키거나 타도하고 민주헌법을 쟁취하는데 적절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지만, 5·3인천사태가 대중성을 획득하거나 대중투쟁을 하는데 적절한 형태로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2.

5·3인천집회는 여러 운동세력이 각각 따로 자기의 집회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외친 구호도 제각기 달랐다. 학생단체도 제각기 노동단체도 제각각 장소를 달리 해서 다른 주장을 펼쳤다. 신민당의 개헌추진위원회 경기도 및 인천시지부 결성대회가 열릴 인천시민회관 대회장 안에는 당원과 시민들이 가득 찼는데, 최루탄 가스가 들어차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민통련과 서노련은 공동 집회를 열어 함께 투쟁하자고 합의했으나 민통련에서 서노련 시위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비어주는 순간 서노련 시위대가 스크럼을 짜고 그냥 지나가 민통련 집회만 엉망이 되었다. 민청련은 민통련 산하단체인데도 신민당과 민통련의 제휴를 비판하고 민민투-민민학련(전국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학생연합)과 함께 “헌법제정 민중회의 소집하자”고 외쳤다.

5·3인천집회에서는 전두환·신군부 못지않게 김영삼·김대중이 이끄는 야당이 몰매를 맞았다. 신민당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정권 장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전두환 정권과 보수대연합을 꾀하는 기회주의자로 매도당했고, 신민당의 개헌서명운동과 각 지부 결성대회도 함께 비난받았다. 그보다도 대중들과 야당, 언론사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격렬한 반미구호였다. “미국의 사주에 의한 개헌 술책 폭로한다” “이원집정부제 강요하는 미국은 물러가라”는 온건한 편이었고, “속지 말자 신민당 몰아내자 양키놈” “친미로 망한 나라 반미로 되살리자”는 구호도 나왔다. 더 나아가 “미제축출” “철천지원수 미제와 그 앞잡이 강패적 반동정권의 심장부에 칼을 꽂자”라는 구호도 외쳤고 성조기 화형식도 있었다.

각 운동단체의 5·3인천집회는 대중들과 함께 같이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외치고 있었는데, 오후 5시경 중구난방의 어수선한 상황을 방관하는 듯 하던 경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연발 최루탄을 발사하며 작전을 펴자 큰 저항 없이 무너졌고, 주안과 제물포·

동인천 일대에서 밤늦게까지 산발적인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3.

5·3인천대회에서 일어난 일은 돌연히 그날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 동안 운동권의 움직임은 볼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학생단체 노동단체 재야단체는 5·3대회에서만 따로 활동한 것이 아니었다. 1985년 하반기에 개헌투쟁이 전개될 때부터 제각기 다른 주장을 폈다. 1986년 7월에 인쇄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펴낸 『개헌과 민주화운동』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진보세력이 개헌서명운동과 헌판식 집회를 자신들의 운동과 상호 결합시키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운동권이 재야 정치권과의 전술적 제휴를 원하지 않았고, 대중집회 정치의 장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만 ‘활용’하려 한 데 있었다. 또한 운동권 안에서도 개헌투쟁을 통일적으로 연합하여 전개하지 못하고 개신교 가톨릭 민통련 학생운동(여기서도 민민학련과 서울대 자민투) 노동운동 등이 제각기 산발적으로 전개하였고, 그 수준 또한 각기 자신들의 개헌투쟁론을 천명하는 데만 역점을 두었다.”

이 책에서는 최소한 가톨릭 개신교 민통련 민청련 범위에서만이라도 연합적으로 일을 추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으나, 5·3 이전에 그러한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시기 운동권은 개헌에 대한 주장이 시기에 따라 바뀌기도 해 자신들의 내부조차 통일성을 갖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민청련은 1985년 하반기에 민주제 개헌투쟁을 밝혔으나 1986년 상반기에는, 그래서 인천집회에서는 헌법제정회의 소집을 주 슬로건으로 내놓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5·3에서 민통련의 주된 구호인 “군부독재 타도 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는 다른 단체에 영향을 주기 어려웠고, 오히려 민청련에 의해서조차 비난을 받을 수 있었다. 5·3인천집회에서 나온 구호는 민주헌법 쟁취를 넘어선 것이었다.

일각에서 주장한 삼민헌법은 그 내용이나 쟁취 방안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삼반정권 타도하자’고 외칠 때 3반의 내용은 짐작이 가지만 어떠한 것이 민중·민주·민족헌법인가는 명확하지 않다. 그 점은 ‘헌법제정회의 소집’도 비슷하다. 민청련의 경우 “군사독재의 즉각적인 종식-군사독재의 잔재를 일체 배제하고 민중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헌법제정회의 소집”을 주장했으나, 어떻게 해야 군사독재를 종식시킬 수 있는지, 헌법제정회의는 국회와 어떻게 다른지, 또 그곳에서 어떠한 헌법을 제정할 것인지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주장이 대중성을 지니고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일반지식인이나 기자들도 잘 모르는 주장이어서 직접적인 대중의 반발을 사지는 않았으나 대중의 지지를 받지도 못했다. ‘헌법제정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그러한 주장을 대중에게 부각시켜 장차 민중봉기 조직화의 단초를 여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그러한 단초는 5·3집회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마련되지 못했다. 6월항쟁에서도 ‘제헌의회 소집’은 서울에서 기백명이 주력부대의 전장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구호로만 외쳐졌을 뿐이다.

4.

5월 3일 인천에서 신민당의 개헌위 경기도 및 인천시지부 결성대회 및 헌판식이 좌절되고 당 총재가 대회장에 아예 접근도 못하고,

각 운동 단체가 제각기 마이크를 잡게 된 데에는 그 이전 신민당 개헌 대회에서 재야가 독자적인 활동을 했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그런데 인천대회에서는 학생·노동단체뿐만 아니라, 민통련도 처음부터 신민당과 별도로 투쟁을 벌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천대회에서 민통련은 원래 10만 이상의 군중을 모아놓고 개헌에 대한 확답을 줄 때까지 농성에 들어가려고 했다. 민통련은 이 농성이 야간까지 이어져 햇불시위로까지 간다면 전국이 변혁적 공간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한영수) 민통련은 대중을 동원하기 위해 신민당 행사장인 주안동 시민회관 앞에 집회를 위한 터를 잡아놓았다. 민통련이 서노련에 대해 공동집회를 갖자고 한 것도 평화적 집회를 유지해 농성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민회관 안에 운집했던 시민들은 학생 측의 최루탄 발사로 쫓겨났고, 각 단체의 개별적인 투쟁으로 시민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방황하다가 흩어졌고, 마지막으로 남은 시민들은 경찰의 최루탄으로 흩어졌다. 민통련의 농성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농성 불가능에 대비한 제2의 장소였던 주안성당에도 열댓명 정도만 올 수 있었다.

학생들도 노동운동 관계자도 재야운동가들도 가두시위의 경험이 적었다. 광주항쟁 이후 그러한 경험을 가질 기회가 거의 없어서였다. 이 점에서 신민당의 개헌 집회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 3월 11일 신민당개헌추진서울시지부 결성대회에는 시민들이 그다지 많이 모이지 않았고, 가두행진이 벌어졌지만 경찰과 별다른 충돌도 없었다. 그렇지만 3월 23일 열린 부산시지부결성대회 및 현판식에서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이 집회에서 신민당 인사들이 빠져나간 뒤 학생들과 시민들이 가두시위를 벌였으나 곧 해산되었다.

5·3인천사태로 가게 할 수 있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3

월 30일 광주대회에서 3시간 동안 집회가 진행될 때 금남로 총장로 등 도심과 도청앞 광장분수대로타리 일대에 시민과 학생이 꽉 들어찼다.(이준한) 오후 6시가 되어도 사람들이 대회장을 떠나지 않자 김영삼 당고문을 선두로 당원과 시민들은 1킬로미터 떨어진 광주 제1지구당 사무실까지 행진을 하여 현판식을 가졌다. 신민당 집회가 종료된 뒤 민통련 지역단체인 전청련 간부들이 전면에서 학생들과 함께 9시 30분까지 시위를 벌였다. 오랜만에 벌인 시위투쟁이었다.

광주의 상황이 전해지자 민통련의 분위기는 흥분과 긴장으로 고무되었다. 이러한 전달은 대개 과장되고 일방적일 수도 있는데, 운동은 이러한 전달을 통해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구나 현장에 가본 적이 없는 학생·노동운동단체의 경우 과장된 전달에 더 분위기가 뜰 수 있었다.

3월 31일 열린 민통련 총회에서는 전청련 간부들이 참여해 대중의 열기와 정세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민통련의 모든 역량을 신민당의 개헌현판식 투쟁 활용에 집중할 것을 건의했다. 민통련은 개헌 현판식에 결집한 대중들과 함께 하기 위해 민통련 조직 역량을 적극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개헌 열기는 3월 28일부터 시작된 교수 시국선언 발표로 더 지펴졌다.

박정희·전두환 등 군부통치 실력자들의 연고지인 대구에서의 4월 5일 대회에도 많은 인파가 모였다. 이 대구 현판식에서부터 민통련 가맹단체는 신민당과 별도의 집회를 갖고 최루탄이 난무하는 가운데 가두투쟁을 벌였다. 이날 밤 학생 약 1500명은 시청을 점거하려 했고, 이에 경찰은 강제로 시위대를 해산했다. 야당의 집회를 활용한 것인데, 신민당과의 차별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양자의 갈등은 심화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독자적 투쟁은 신민당의 집회

가 있음으로써 가능했는데, 그것이 경시될 수도 있었다. 대구에서 민통련 단위의 독자적 민중대회를 개최한 민통련은 야당과 달리 자신들이 민중적 요구를 수렴하고 민중투쟁을 이끄는 주체세력으로 부각시켰다고 판단하고 4월 19일 대전, 4월 26일 청주 신민당 개헌 집회에서도 독자적인 투쟁을 전개했다.

4월말 경에는 5·3인천사태로 가게 하는 또 하나의 사태가 일어났다.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4주년이 되는 1986년 3월 18일 서울대에 반전반핵투위가 발족하면서(위원장 이재호) “반전반핵 양키고홈” “친미독재 타도하고 미제국주의 몰아내자”는 구호를 외쳤는데, 4월 28일 이재호와 김세진이 400여 학생들과 신림사거리에서 “양키의 용병교육 전방입소 결사반대”를 외치다가 경찰이 다가오면 분신하겠다고 했는데도 연행하려 하자 분신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두 학생이 분신해 위독한 상태에 처한 것은 반미투쟁, 경찰의 잔인함과 함께 운동권에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다음날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락기구(민국련)의 이민우 신민당총재, 김대중 민주협공동의장, 문익환 민통련의장 등은 학생들의 반미·반핵·민족자주화투쟁을 지지하지 못한다고 선언했다. 그 다음날인 4월 30일 전두환은 3당대표와 회담을 갖고 ‘전대통령의 임기 내 여야 합의 개헌’에 합의해주었다. 하지만 운동권은 다수가 이 합의가 보수대연합이자 야당의 기회주의적 성격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했다. 그들은 이 합의가 전두환의 양보로, 여권의 온건파 주장이 작용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광주 대구 등지에서의 개헌열기에 대한 굴복이라는 점은 생각에 들어오지 않았다. 다음날인 5월 1일 민통련은 29일의 민국련 기자회견은 보수 정치인들의 외세 의존적이고 타협적인 자세에 기인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민국련에서의 탈퇴와 의장단을 비롯해 집행부 전체가 사퇴하기로 결의했다. 야당과의 느슨한 연대마저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인천집회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지의 야당 개헌 집회와 다를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때까지 민청련 같은 단체도 야당의 개헌 집회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고, 그 점은 다른 운동권 단체도 비슷했다. 이것에는 역량의 문제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에는 강렬한 이념을 갖춘 노동·학생운동단체와 재야단체들이 포진하고 있었고, 이들은 일찍부터 야당의 인천 집회를 자신의 이념의 혁명성이나 우월성을 드러내고 그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었다. 민통련은 이 단체들을 통제하기 어려웠고, 5월 3일 직전에 야당에 대한 비난과 공격, 반미운동에 수위 조절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5.

임기 내 개헌을 하지 않겠다던 전두환이 4월30일 '양보'를 한 것은 5월 3일 수도권의 한복판에서 개헌 집회가 열리게 되어 있었던 것도 한 요인이었다. 전은 이 집회를 분열시키고 약화시키기 위해서도 개헌을 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이다.

야당은 부산 광주 대구의 열기를 몰고 인천집회에서 전두환 정권을 압박할 수 있는 대규모 집회를 구상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대중의 열기가 뜨거운 것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보다 자신의 개헌 집회를 '활용'해 민통련이 독자적인 집회를 갖는 것에 신경이 쓰였다. 특히 3월에 잇달아 있었던 서울대생의 반미집회와 분신사건은 그들로서는 우려할만한 사태였고, 그것은 4·29민국련기자회견으로 표명되었다. 4월 30일 전두환과의 회담에서 이민우가 "소수이겠지만 좌익학생들을 단호히 다스려야 하며 민주화운동에 이런 사람들이 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에는(조현연) 이민우의 솔직한 심정이 담겨져 있었다. 이 때문에 신민당은 대중을 적극 끌어들이기 위해 당력을 기울이기보다 재야 등 운동권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천대회는 중요했다. 그 인천대회장에 당 지도부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대회장은 최루탄이 터져 아수라장이 됨으로써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천집회가 어처구니없게 무산된 것에 발걸음을 돌린 김영삼 등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양김은 물론이고 이민우도 운동권이 주장한 바처럼 전두환의 4·30야당이 야당과 운동권을 분열시키기 위한 작전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면 운동권은 적절히 대처했는가. 운동권은 야당보다도 더 전두환의 분열작전에 말려든 것은 아니었을까.

5·3인천사태는 1986, 87년의 국면에서 운동권이 야당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묻게 했다. 먼저 야당의 개헌 집회 없이 대중집회가 가능했겠느냐는 문제는 대답이 어렵지 않다고 본다. 대중동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중의 지지나 열기가 뜨거울 때 가능하다. 그 열기를 더 뜨겁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쪽이냐는 그 다음 문제다. 부산에서 개헌 열기가 뜨거웠는데, 그곳이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광주의 뜨거운 열기는 광주항쟁과 김대중을 제외하고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개헌헌판식 집회는 개헌운동의 투쟁국면을 창출해냈고, 2·12총선의 열기를 한 단계 끌어올려 독재 권력에 대한 민중적 저항으로 발전시켰다.(조현연) 민통련이 민국련 결성을 추진한 것은 운동권이 독자적으로 싸우는 것은 역량부족이라는 판단에서였다.(조현연) 광주의 전청련 등 민통련 산하 지역운동단체들은 신민당과의 차별성은 신민당을 공격하는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정으로 대

중투쟁을 잘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5·3은 이러한 점들이 무시되었다. 5·3 이후 운동권의 대중 투쟁은 어려워졌고, 한동안 대중의 지지로부터 멀어졌다.(이우재)

5·3집회를 전후해서 이원집정부제가 집중적으로 비판과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전두환은 이원집정부제를 모색한 적이 없었다. 다 알다시피 독재 권력은 결코 권력의 분산을 원치 않는다. 4·30회의 이후 전두환·민정당이 한동안 내걸었던 내각제도 이승만·자유당 말기의 그것처럼 대통령 권한이 강대한 형식뿐인 내각제였을 뿐이다.

운동권은 야당의 기회주의를 보수대연합과 연결시켜 맹렬히 매도하고 공격했지만, 양김이 보수대연합을 획책한 적은 없었다. 김영삼은 개헌집회 이전에 내각제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봤지만, 김대중과 보조를 맞추며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했다. 직선제는 6월항쟁 전에는 전두환이건 민정당 온건파(당권파)건 고려한 적이 없었고, 당시 민통련은 직선제는 군부 퇴진과 같은 것으로 판단했다.

일부 운동권은 자신들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신민당을 단일한 당으로 전제했지만, 신민당 내에는 민한당 인사들이 다수 들어왔고, 당 총재인 이민우만 해도 유진산 직계로 활동한 보수적 인사였다. 1986년 말에서 1987년 봄까지 '이민우 구상'이 유령처럼 양김을 괴롭혀 결국 새 당을 만들게 했는데, 그때 이철승 등이 유신시기를 상기시키는 행위를 했다.

5·3사태에서 급진적이었던 세력의 주장은, 야당의 기회주의적 성격을 강렬히 부각시키며 1984년 12월경에 총선거부론을 펴던 주장(『학생운동논쟁사』, 일송정, 71-72쪽), 2·12총선 이후 한때 개헌투쟁 무용론을 펴던 주장을(『개헌과 민주화운동』 18-19쪽) 상기시킨다. 실제로 5월 3일 인천집회에서 여러 단체가 그와 유사한 논지를 펴

다.

6.

혁명 또는 변혁은 기존 권력이나 제도, 기존 정치인과 정치조직을 부정한다. 활동가들에게는 몹시 정서가 고양되고 흥분될 때가 있다. 벅찬 감성에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사명의식 또는 소명의식이 있을 때 환상이나 낭만이 들어올 수도 있다. 5월 3일 인천대회장 일대에 집결한 각 단체의 관계자들 상당수는 혁명적 열의와 변혁의지를 가지고 나왔다. 선배들이 5월 3일은 혁명 투쟁의 날이니 그러한 각오로 나오라고 얘기했다는 증언도 있다. 분단 정부 수립 후 혁명적 공간이 있었다면 5월 3일 인천 개헌대회장 일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 노동·학생운동단체 관계자들 중에는 자신이 최근에 급격히 소유하게 된 정치이념이 다른 누구도 갖지 못한 위대한 이념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청년·학생들이 있었다. 그들은 잘못된 세상을 혁명가의 혁명적 투쟁으로 분쇄하고 새 세상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념을 지니게 된 데는 당시 자본주의의 성격 또는 노동자 농민 빈민의 존재형태가 영향을 미쳤으나, 전두환군부정권, 나아가 극우반공체제를 타도하려면 혁명적 방법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자극을 주거나 영향을 미친 것들이 있었다. 급진적 정치이념들이 그것이었는데, 사회구성체 이론도 한몫을 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울대를 중심으로 이념투쟁이 계속 되었다. 개헌투쟁에서 헌법제정회의를 소집하자는 주장도 1917년 러시아에서의 상황을 상기시켰는데, 기존 헌법체제를 부정하는 성격

이 들어 있는 혁명적 이념이었다. '양키 고 홈' 주장도 한국에서는 혁명적 주장이었다. 1986년 4월에는 대학에 민민투 자민투 같은 조직이 생겨났다. 광주에서의 개헌 집회도 영향을 주었다. 민통련도 그 대회 직후 대중의 변혁 열기가 폭발적으로 고양되고 있으며, 군사독재 타도 투쟁과 함께 민중궐기를 촉구한다는 투쟁 방향을 세우기에 이르렀고,(조현연),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5월 3일 개헌 대회장 옆에서 대규모 농성 투쟁에 들어가 그것이 야간에 햇불시위까지 간다면 전국이 변혁적 공간으로 넘어간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위해 사흘 전에 먼저 가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한영수), 서노련 등도 서둘러 가 혁명적 투쟁을 위한 준비를 했다.

그러나 5월 3일 인천에서의 혁명적 투쟁은 힘없이 무너졌다.

반미자주화투쟁은 운동권에 신선한 충격을 주어 파급력이 컸다.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그렇지만 수위는 조절될 필요가 있었고, 특히 북과의 관련성은 신중해야 했다. '미제축출' '철천지원수' 같은 표현은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야당 정치인에게도 두려움을 줄 수 있었고, 김대중 김영삼도 우려를 가질 수 있었다. 보수 반공적이지만 야당의 개헌 집회를 호의적으로 보도했던 동아일보가 인천시위는 시위군중과 경찰의 충돌, 방화, 폭력의 과격성 시비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하고, '민주세력'에 대한 개념 정립 등 민주화 추진, 전략상의 본질 문제까지 한꺼번에 재고의 대상으로 대두되었다고 피력한 것은 반미구호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가를 말해준다.

7.

5.3인천사태가 미친 영향은 속히 드러났다.

전두환과 민정당은 호재를 만났다고 반겼다. KBS와 MBC는 시위대의 폭력성과 방화를 부각시키는데 열을 올렸다. 기다렸다는 듯이 전두환은 군 작전을 퍼듯 운동권 세력 초토화 작전에 나섰다. 전정권은 인천사태를 극렬 좌경용공 폭력세력에 의한 난동으로 몰아갔다. 전두환은 1987년 6월 1일 흥미 있는 발언을 했다. 3월부터 6월까지 정부·여당이 수세적이었다가 7월부터 새해 1,2월까지 밀고 간다는 발언이었다. 전두환은 인천사태로 5월부터 폭압적 공세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는 야당과 민주화운동권이 결합해 민중이 강력한 힘을 보여줄 때가 무섭지,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민정당은 김영삼과도 만나자고 하더니만 전과는 반대로 국회 내에 헌법특위를 구성하자고 나왔다.

신민당은 난감했다. 비록 5·3사태는 정권의 공작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발표했지만, 몹시 곤혹스러웠다. 결국 5월 29일 여야는 국회에 헌법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양김이 직선제를 고수하는 한 헌특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9월 29일 야당은 헌특 활동을 중지하겠다고 결정했다. 10월 유성환 의원 발언에 전두환은 면책특권을 깔아뭉개고 새벽에 전격 체포했다. 11월 5일 김대중은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이제는 '이민우 구상'이란 복병으로 혼선을 거듭했다.

수도권 학생들에게 5·3개헌대회는 가두투쟁을 실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자민투 민민투 관계자들은 재야·노동단체 관계자들처럼 쫓기고 체포당했다. 5월 이후 관계자들이 속속 체포되던 자민투의 '이면조직' 구학련은 10월 서울대 대자보 사건으로 와해의 위기를 맞았다. 학생운동 관계자들은 특히 10월말 건국대에서의 공포의 농성과 대대적인 체포사건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 자민투계열의 학생들은 가을 이후 대학에서 우세했지만, 박종철군고문사망사

건 이후 민주대연합의 분위기 속에서 조금씩 대중적 힘을 얻어가던 야당과 달리 2·7추도식, 3·3평화행진에도 적은 수가 참여했다. 전두환의 4·13호헌조치 이후 교수와 종교인 중심으로 각계각층에서 호헌철폐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지만, 주요 대학 학생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던 자민투계열은 별다른 투쟁을 보이지 않았고, 그것은 5월 투쟁에서도 비슷했다. 이처럼 학생들의 투쟁력이 약화된 것은 여러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4·28신림동시위, 5·3인천사태, 구학련사건-서울대 대자보사건, 특히 건국대사태 등을 겪으며 정신적인 준비가 갖춰지지 못한 것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대중적 투쟁력이 살아나는 것은 5월 하순 이후로, 6월항쟁에서 가두투쟁의 주력이 되었다.

8.

성유보는 인천집회에서의 중구난방은 때와 장소를 잘못 고른 커다란 실책이었다고 반성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 5·3인천집회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냈다,’ ‘과감히 혁명적 투쟁을 했다,’ ‘여한 없이 싸워봤다’는 주장은 충분히 인정할만한 점이 있다고 본다. 그와 함께 5·3항쟁이 반면교사가 되어 다음해에 국민운동본부가 탄생하였으니, 5·3항쟁은 비록 반면교사였지만, 6월항쟁의 밑거름이 되었던 셈이라는 이우재의 평가도 흥미할 만하다.

발제2

한국 민주화 운동에서 5.3 인천 민주항쟁
- 지금의 시점에서 본 여러 쟁점들 -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11

한국 민주화 운동에서 '5.3 인천 민주항쟁'

- 지금의 시점에서 본 여러 쟁점들 -

김동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1. 한국에서 야당, 재야의 관계

- 5.3은 야당이 만든 공간?, 운동진영이 주체적으로 만들어낸 공간?
- 한국 민주화에서 야당의 역할과 한계는 무엇인가?
(체제유지의 바람막이, 정치 변화를 위한 합법적 공간 ?)
- 야당을 택한 운동권 인사들은 한국의 민주화와 정치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나?

그렇죠. 언론들이나 그때 인천 사태를 언론과 이런 걸 통해서 폭력집회다, 좌경용공에 전투장 같이 연일 쏟아내고, 그 당시에 수배될 때 상황보면 이건 작살내야 될 역도같은 놈들이고, 이렇게 쪽 되니까 신민당도 선 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박계동)

그러면 어쨌든 야당이 뚫어놓은 권력투쟁의 장인데 우리는 구경할 수는 없고 백성들은 솟아오르고 있으니까 그럼 거기서 우리의 주장을 좀 하고 싸움을 타협적인 국면으로 가지 말고 좀 전투적으로 끌고 나가자 이런 거예요.(권병기)

2. 재야의 정치적 역할

- 민청련과 민통련, 전민련으로 이어지는 재야 운동과 정치운동
- 전선운동은 (진보) 정치운동으로 전환되었어야 했나? 다른 길은 없었는가?

- 정치운동과 사회운동의 역할분담은 어떠해야 하나?

- 학생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문화·사회운동, 언론, 그런 부문운동과,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광주, 그런 지역운동, 그것을 다 한꺼번에 다 엮는 전선적 구심체가 민통련이에요.

- 재야정치조직, 그렇다고 정치를 하려던 조직은 아니고 말 그대로 재야정치를 추구했죠. (이남희)

3. 학생운동과 대중동원

- 학생운동이 사라진 시대에 누가 지역의 동원세력이 될 수 있나?
- 학생운동외의 대중적 동원세력은 없는가? 대중동원의 시대는 끝났는가? 그렇다면 대중들의 불만과 요구는 어떻게 분출될 수 있나?

- 그리고 지운협이 힘이 섰던 게 뭐냐 하면 각 지역에 대학 총학생회들하고 다 연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학생운동 출신들이니까. 그러니까 대구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붙고, 대구 끝난 다음에 3·30집회를 광주에서 한 거죠. 대구에서 5만 집회고, 광주에서 10만 이상 집회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대구는 중심가에 한 일부정도가 해방구였다면 광주는 전체가 해방구 형태가 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북상하는 거예요. 쪽 올라가다가 영남, 호남 이쪽을 동서를 찍어 가면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인천 집회를 하고 서울 집회에서 결론을 내려고 했던 거죠 (박계동)

4. 야당과 노동운동, 재야와 노동운동

- 5.3 당시 야당의 현판식이라는 합법적인 공간을 노동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한국 민주화에서 야당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 한국의 야당은 프티부르주와 정당인가? 야당이 노동운동을 끌어안을 수 있을까? 재야 지식인들은 생활현장의 노동자들과 어떤 괴리감을 갖고 있나?

- 직선제, 민주화는 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나? 53당시 비조직 노동자들의 참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 노동운동은 어떻게 정치적으로 조직화되어야 하나?

우리 인노련 같은 경우는 '민주화는 아니다', '노동자 정권이 들어서야 한다.' 이 부분이었어요. 여기서 차이가 난다고. '노동자를 이해하는 정권이 서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노동운동 자체에 변화는 없을 거다.' 이런 거였다고. '타도'였다고. 우리는 '타도 전두환'이었다고.(양승조)

5. 교회와 사회운동

- 인천지의 지역사회에서 교회(가톨릭)은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었나?

- 교회는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계급운동에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나?

- 오늘 인천지역에서 교회와 지역 사회운동의 관계는?

인사련은 1984년 11월 19일 가톨릭회관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발족했는데 창립 당시 지도위원회는 호인수 신부를 비롯해 김용환 신부, 이성득 신부, 조성교 신부, 홍창만 신부, 황상근 신부, 이은규 목사, 정일우 목사, 조화순 목사 등 9명이었다.¹⁾ 지도위원들이 신부와 목사 등 종교계 인사로 꾸려진 데에는 인천지역의 종교계가 이미 1960년대부터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사련 조직과 회원들을 보호하는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1) 『민주화의 물결』 창간호, 1984년 12월 25일자,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

6. 지역사회와 5.3

- 인천의 보통 시민들은 5.3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 그들은 53을 인천의 집합적 기억으로 만드는 일에 동의할까?
- 5.3 참가자들 중 여전히 인천에서 지역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 오늘의 인천 지역운동은 5.3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 53의 경험은 인천의 지역운동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나?

인천 5.3이 인천시민 전체의 궂기였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인천 시민들이 정말 다들 울분이나 분노로 들고 일어나서 한 게 아니었구요. 분위기도 좀 그랬죠. 조직활동 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상당수가 모여서 '이 사람들만의 큰 사건이었다' 하는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죠. (호인수)

5.3이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5.3이후에 인천에서 자생적이고 양심적인 지식인과 지역 어른들을 모아내지 못한 거 같아요. 소위 연합 단체의 장을 누구도 맡으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은 1년 후에 6월항쟁이 다가오면서 인천에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인천만 유일하게 못 만들었다고. 53의 영향이에요.(권병기)

7. 6월 항쟁, 7.8월 대투쟁과 5.3

- 전국적인 6월 항쟁이 5.3이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대중저항의 시작, 직선제 개헌의 문제제기?
- 6월 항쟁이 광주 5.18의 전국화라고 했을 때, 5.3은 광주 문제의 전면적 문제제기?
- 5.3은 5공 군부에게 어느 정도 타격을 주었나? 87년 노태우의 6.29 선언과 5.3의 관계는 무엇일까?

그게 서울까지의 마무리죠. 인천이 마무리죠. 디딤돌이 아니라 그 에너지죠. 전부 다. 공개화 운동을 민청련이나 전민련이나 이렇게 공개화 운동으로 사무실 낸 거와 마찬가지로 이 집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심 이런 걸 갖다가 저 지역에서부터 다 해 왔는데 넥타이부대가 안나오고 돼, 다 나오는 거지. 저희들이 뭐 선동해서 넥타이부대가 나왔어? 이미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한 번 집회하면 신문에 꼭 차잡아요. 보도가. 당시 언론들 봐요. 그 지역신문들에는 그걸로 한 면을 다 도배하죠.(박계동)

일련의 직선제 요구 투쟁의 정점이었죠. 그것이 모든 파고가 화산덩어리도 끝까지 올라왔다가 한 번 쪽 내려가잖아요. 그 힘의 에너지가 다시 원전이 돼서 종국적으로 솟아오른 게 6.10항쟁이죠. 그런 건 개헌 헌판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주제는 변화됐지만 전 민주적 동원과 참여, 그런 것들에 대한 훈련은 일관된 민주화 요구에서, 주제나 달랐을 뿐이지 군정종식과 민주화 요구에 대한 거는 5.3에 쪽 꾸준히 이어왔던 거고 6.10이 그 걸 갖다가 최고 정점에 오른 거고. 53때 거기까지 갔다가 그 주체들이 수배당하고 그러면서 다시 폭 하고 꺼지는 거죠. 6.10까지. 그랬다가 폭발하는 거죠. (박계동)

광주 이후에 6월 항쟁으로 가는 도중에 제일 큰 투쟁이었다는 정도로 의미를 갖는 거죠. 그 이후에 대대적인 탄압이 들어갔고. 우리가 수세적인 국면으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하나씩 하나씩 깨져나갔어요. 그 다음에 서노련도 다 끌어갔고. 인천도 풍비박산 나면서 깨졌어요. (이우재)

8. 운동진영의 사상적 분화의 계기로서 5.3

- 5.3은 운동의 백화점. 각 진영의 열정과 주장은 지금의 시점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나?

- NL론과 PD론은 지금의 시점에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미친 부정적 효과는 무엇이며, 어떤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갖고 있나?
- 자주, 통일, 민중해방의 이념은 어떤 의미로 살아있나?

5.3이후에 운동권이 변화된 게 주사파가 운동 전면을 장악하게 되거든요. 53을 계기로. 그때 소위 말하는 '강철서신'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운동 이전에 사람이 돼라. 품성론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운동 일선 활동가들에게는 절절했거든요. 같은 동지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씹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하는 건가 하면서 반성하기 시작했고. 대동단결하자 그랬죠. (이우재)

9. 5.3의 이념과 사회적 지도력

- 당시 군부독재 타도 이후의 대안은 상상하기 어려웠나?
- 직선제 개헌은 곧 민주화인가?
- 지금 한국인 민주주의 국가인가? 선거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은 무엇인가?
- 5.3에 참가했던 사람들, 주요 인물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되었나?

민통련의 구호는 '군부독재 타도하여 민주정부 수립하자', '군사독재 물리치고 민주헌법 쟁취하자'였다. '민주정부', 혹은 '민주헌법'이란 구체적인 상이 있었을까.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역시 1984년 10월 25일 발표한 출범 발기문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이라는 우리시대의 과제가 각계각층은 물론, 이 땅의 방방곡곡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됨을 통해서만이 궁극적으로 해결되리라 믿는다.'고 밝히며 '민주주의의 실현'과 '민족통일의 달성'을 해결해야 할 절대적 과제로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정부, 민주헌법이란 건 한마디로 '민중의 권력'이죠. 내용적으로는 그래요. 삼민헌법은 너무 과격하다고 봤고, 직선제는 신민당의 들러리라고 봤어요. 적어도 민주화를 쟁취하는 데 있어서 신민당과 함께 하지만 우리는 신민당과 같지는 않다. 신민당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런 생각들이 어정쩡하게 표현된 거예요. 구체적인 상이 있던 건 아니었어요.(이우재)

저는 그 당시의 운동 역량 상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노동운동도 정치투쟁 조직노선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고, 학생운동도 내부 논쟁이 있던 시기였고, 그렇다고 해서 민통련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던 때도 아니고. 나중에 전민련하고는 달랐죠. 민통련은 재야 명망가 중심이었으니까요. 그러다보니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 그걸 절대적으로 받지 못했죠. 지도력에 한계도 있고. 그런 전체적인 운동 내부의 주체적인 한계로 인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신정길)

-70년대, 80년대 우리 운동판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15년 보니까 도루묵이에요. 70년대 주장했던 게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 오히려 더 못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의도놈들은 조금 숨통이 튼 거 같애. 있는 놈들은. 없는 놈들은 계속 더 밑으로 물리고 있는 놈들은 조금 더 벌어진 거 같고. 이런 생각 드니까 잠도 안 오고 그래요.(양승조)

10. 5.3과 현재의 한국 민주주의

5.3의 역사적 성격과 의미

- 80년대 수도권 최대의 정치적 시위
- 신민당의 타협론에 제동을 걸고 보다 철저한 민주화의 필요성을

각인시킨 사건

- 그렇다면 5.3은 한국 민주주의에 어떤 위상을 지니고 있나? 선거 민주주의가 아닌 대중저항은 민주화에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나? 5.3 참여자들의 고통과 희생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인정받아야 하나? 민주화 보상? 명예회복?

-

* 급진적 민주주의(조희연), 프로테스트형 민주화 모델(이준환)

전두환 정권이 호락호락 독재를 해 먹기는 참 어렵겠구나 하는 정도의 경종을 울렸던 대회라고 봐요. 우리도 이렇게 10만 명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싸울 수 있는 거구나 이거. 전두환 밑에서 맨날 불불 기어서 주눅만 들 일이 아니고 이렇게 모여서 한바탕 할 수 있는 거구나. 투쟁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계기였죠.(장영달)

토론1

인천 '5.3민주항쟁'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토론문
김명인 (인하대학교 교수)

인천 '5.3민주항쟁'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토론문

김명인(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그날 현장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5.3사태'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인천에서 제대로 한판 했구나!'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어떤 작은 기회라도 이용해서 대중투쟁의 공간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서중석 선생님의 발제 <5.3인천사태 평가>를 보면 운동권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냈다, 과감히 혁명투쟁을 했다, 여한 없이 싸워봤다는 주장을 일면 인정하고, '반면교사로서였지만 6월항쟁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전반적으로는 비판적 평가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당시 전두환 정권과 야당, 재야 운동권 전반의 상황에 대한 상세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선생님의 비판적 평가를 거칠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시 신민당이 주도한 부산 대구 광주 등지의 개헌헌판식 투쟁과 대학생들의 반미 자주화투쟁의 열기로 당시 전두환정권은 '4.30 임기내 여야 합의 개헌'안을 제시하는 등 직선제 개헌 문제에 진전이 있었다.

2) 하지만 5.3사태에 참여한 노동·학생운동단체들은 야당의 인천 집회를 이용하여 자기들의 이념의 혁명성과 우월성을 드러내 알리고 이를 혁명적 전환의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3) 전두환정권은 야당과 재야운동권을 분열시키고자 하였다.

4) 그러나 운동권은 (이러한 정권의 의도를 모르거나 무시한 채) 야당의 기회주의적 성격을 부각시키면서 5.3사태를 급진적 운동권

의 중구난방(성유보) 상태로 만들어 결국 진전되던 개헌논의를 살리지 못하고 전두환 정권의 공안몰이와 운동세력에 대한 탄압 및 와해, 그리고 대중으로부터의 외면을 불러왔다.

저는 당시 노동·학생운동 단체들의 이념적 급진성과 그로 인한 일종의 시대착오(당시 상황을 마치 혁명적 정황이 임박한 것처럼 파악한 것)와 그로 인한 대중과의 유리에 대해서는 서중석 선생님과 의견을 대체로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5.3사태 자체를 격렬한 대정부투쟁을 몰고 간 것과, 야당에 대해 거리를 두고 독자적인 투쟁 노선을 견지한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달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당시 학생운동 조직과 급진적 노동운동 조직이 아무리 이념적 급진성으로 무장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직 그에 상응할만한 대중 조직이나 노동자조직과의 실제적 연관, 혹은 토대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역사적으로는 그 흐름은 신군부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는 민주화투쟁, 다른 말로 하면 부르주아민주주의투쟁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즉 투쟁(운동)의 본질이 제한적이었으므로, 오히려 그 안에서 투쟁의 격렬성은 더 필요했다고 봅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공안몰이나 조직와해 등의 피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5.3사태는 당시 전두환 정권을 매우 혼란에 빠뜨렸다고 보며, 그것이 권인숙 사건, 박종철 사건 등의 자충수로 이어져 이듬해의 6월항쟁과 직선제 쟁취(부르주아민주주의투쟁의 부분적 승리)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5.3사태가 6월항쟁에 '반면교사'로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렬한 가두투쟁의 경험으로 6월항쟁에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동춘 선생의 발제 <한국 민주화 운동에서 '5.3 인천 민주항쟁'>에 대한 소감을 몇 가지 언급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에서의 야당, 재야의 관계, 재야의 정치적 역할 등에 관해서

저는 87년 6월항쟁을 부르주아민주주의투쟁으로 규정하고 직선제 개헌의 쟁취가 당시로서는 최대성취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시의 국면에서 야당은 종속적 존재가 아니라 주동적 존재였으며 사실상 87년 6월항쟁의 실질적 주역이자 최대 수혜자였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둘째, 당시의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위상에 대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당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이념적 급진성과 정치세력에 대한 경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세력은 결국 민통련 등 재야 운동세력과 더불어 자유주의 정치집단(야당)과 그에 의한 정권 교체가 최대목표였던 '국민대중'의 부르주아민주주의적 요구에 동원되었다고 봅니다.

셋째, 5.3의 현재적 의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그럴 역량도 없었고 결국 부르주아민주주의의 부분적 승리에 포섭되고 이후 노태우정권 이후의 반동기에 고립배제되어 버렸고, 당시 5.3에 참여한 각 운동주체들의 사상이념이란 것도, 기껏해야 볼셰비키혁명론이나 민주기지론 등의 변주에 불과했지만, 어쨌든 그 주체들이 당시의 기본 추세였던 부르주아민주주의운동과 선을 긋고 그 이상, 혹은 이후의 체제와 가치를 꿈꾸고 그 실현을 위해 싸웠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봅니다. 비록 시대착오적이고 낭만적인 몽상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신자유주의 이후, 자본주의 이후를 꿈꾸는 이론적 실천적 상상력이 더할 수 없이 강하게 요청되고 있다고 할 때, 5.3이 보여주었던 '격렬하고도 발칙한 몽상'은 지금 매우 긴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소략하나마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토론2

베트남으로 본 '5.3'
윤대영 (서강대학교 교수)

11

[토론문]

베트남으로 보는 '5·3'

윤대영(서강대학교 교수)

두 분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서중석 선생님께서는 '5·3인천사태'를 대중성과 군부독재 타도를 중심으로 평가해 주셨고, 김동춘 선생님께서는 '5·3 인천 민주항쟁'이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다양한 영역들의 쟁점들과 연결하여 현 단계의 한국 민주주의와 인천 지역사회의 발전 방향도 모색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로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의 역사를 공부해 온 저 같은 사람이 두 분 선생님의 발표에 논평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다만 인천 남구 학익동에 8년째 거주해 온 시민의 한 사람으로 토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두 분 선생님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베트남과 얽혀 있는 '5·3'을 이번 토론을 통해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남베트남이 패망하기 하루 전인 1975년 4월 29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TV와 라디오로 '월남 패망에 대한 대통령 특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담화에서 박 전 대통령은 "(남베트남의) 국론이 통일되지 않았다. 또 국민이 단결되어 있지 않았다. 정치 불안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집안싸움만 하고 앉았다가 결국 패전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11년이 지난 1986년 당시 서울 노량진에 거주하면서 모 고등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저에게 '5·3'은 다음과 같이 다가왔습니다.

4월 28일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밤 11시가 넘어서 귀가한 저에게 어머니께서 오늘 있었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는데, 그날 오전에 신림사거리 근처를 버스로 지나시던 어머니께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서울대학교 학생 2명이 데모를 하다가 분신한 사태가 벌어져서 생명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지금은 TV조선의 열혈 시청자이시기는 하지만, 입시학원 영어선생님이셨던 아버님이 5공 정권 출현 이후에 실직자로 전락한 상황에서 전두환 정권에 유독 반감이 많으셨던 어머니는 서울대 학생 2명의 상황을 무척이나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경향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분신자살 기도는 11년 전 월남 패망 직전 승려들의 분신자살을 연상케 하는 폭력 유발적 극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1975년 남베트남 패망을 계기로 대학생 군사 교육은 강화되어 주당 교육 시간이 늘어났으며 1976년부터는 문무대에 들어가 훈련 받는 병영 집체 교육이 추가되었음을 고려한다면, 1986년 4월에 들어 전방 입소 교육 중이던 성균관대생들의 자진 퇴소와 28일 전방 입소 반대 요구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분신자살한 서울대생 2명의 죽음은 '5·3'의 서막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일 후인 5월 1일 전두환 대통령은 3당 대표(이민우 총재, 이만섭 총재, 노태우 대표위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오늘이 월남 패망 11주년이 되는 날인데, 자유월남이 망한 후 정당이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우리의 안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

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노태우 대표위원은 “법질서 파괴와 폭력 행위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5월 3일 인천 현판식에 운동권 학생들이 몰려가자고 대자보에다 선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평 일대에 위장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인천 대회 참가를 선동하고 있습니다”라고 거들었습니다. 남베트남 패망 이후 매년 ‘제2의 월남 패망’ 담론을 들고 나와 정국의 안정을 강조하고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려던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의 지도자들은 ‘5·3’을 이미 예견하며 적극적인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틀 후 저는 늦은 밤 마감뉴스를 통해서야 간접적으로나마 ‘5·3’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TV매체들의 보도에 등장하는 ‘5·3’은 ‘폭도들’에 의한 ‘폭력’이 난무하는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저희 반 아이들이 학교 음악실에서 음악 수업을 받기 위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음악 선생님께서 발목 한 쪽에 붕대를 감은 채로 절뚝거리며 들어오셨습니다. 수업을 시작하실 때마다 민중운동 관련 시를 한 편씩 읽어주셨던 선생님은 아이들의 걱정스러운 표정과 질문에 담담한 모습으로 응해주셨습니다. ‘5·3’ 때 풍물패에 가담했던 선생님은 경찰의 최루탄을 맞아서 발목을 심하게 다치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생생한 상황 설명을 통해 TV의 ‘5·3’ 장면이 어떠한 방식으로 편집되어 시청자들에게 소개되었는지도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민우 신민당 총재는 5월 3일 인천 대회가 불발된 후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일의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화를 하지 않은 데 있다. 민주화가 되면 내가 돌팔매를 맞더라도 과격 학생들을 설득하는 데 나서겠다. 월남 패망에서도 얻은 교훈이

지만 민주화를 계속 거부할 경우 국민의 독재에 대한 저항은 끝내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전환, 또 그것이 정당화되고 만다. 그런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도 민주화는 꼭 해야 하고 또 시기가 급하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5월 10일 마산에서 열린 신민당 개헌 추진 지부 결성 대회가 비교적 조용하게 끝난 이후에도 『경향신문』과 같은 일부 언론은 “지난날 월남의 민족해방전선(FNL)과 성격이 유사한 좌경 친좌경 세력과의 제휴를 끊고 호랑이 등에서 뛰어내려야 한다”고 신민당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검은 15일에 신민당 유성환 의원의 국회 본회의 발언 및 대정부 질문 원고 내용과 관련하여 유 의원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위반(반국가 단체 찬양 고무 동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서울형사지법에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을 적용한 데 대해 유 의원의 원고 내용이 (1) 현 체제를 민주 수탈 체제로 왜곡하고 미국이 ‘2개의 한국’ 조작책동으로 우리 민족의 영구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는 북괴의 상투적인 비방 선전에 동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 패망한 공산 월남의 경우처럼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마저 무방한 것으로 수용함으로써 반공 정책의 포기를 의미하고 적화 통일을 획책하고 있는 북괴의 대남 적화 선전 책동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정부와 언론은 ‘월남 패망’ 담론을 근거로 ‘5·3’ 이후의 정치적, 사회적 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해 나갔고, 대중성 확보에 실패한 ‘5·3’ 이후의 운동권 진영은 한동안 대중의 지지로부터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면교사로 작

용한 '5·3항쟁'이 '6월 항쟁'으로 발전한 모습은 지역 차원에서의 상징적인 운동이 중앙에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재 인천 지역의 정치적 상황을 볼 때, '5·3항쟁'이 교훈으로 삼았던 대중성 확보라는 시대정신이 지난 총선 과정을 통해 잘 구현되고 있었던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 계급 혁명에 동조했던 프랑스의 대표적인 좌파 지식인 사르트르(Jean Paul Sartre, 1905-1980)는 공산주의가 동포와 동지도 서로 살육한다는 '동포성(同胞性)의 변증법'을 제기하면서 사망하기 직전에 베트남의 보트피플 구조에 앞장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르트르의 고등사범학교(École Normale Supérieure) 동창이었던 자유주의 우파 지식인 레이몽 아롱(Raymond Aron, 1905-1983)은 좌경화한 사르트르와 50년 동안 절교 상태에 있다가 보트피플 구조에 함께 협력하면서 비로소 화해의 악수를 했습니다. '5·3항쟁' 30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행여나 '시민성(市民性)의 변증법'이 또아리를 틀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반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3

**‘5·3인천항쟁’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김종현(전 인천사회운동연합)**

'5.3 인천 민주항쟁'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김중현(전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1. 80년대 운동의 당면과제를 수행하는 데서 5.3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1-1. 80년 광주항쟁이 제기한 목표

- 체제의 근본적 변혁에 대한 각성
- 운동의 주체: 전국적인 연합 / 계급적 문제

1-2. 운동의 대중적 확산과 운동 주체의 조직/투쟁 역량의 강화 측면에서

광주 3.30 이후 대구-마산-대전-청주로 이어지는 투쟁과 53의 차이는?

1-3. 인천 지역운동 차원에서 5.3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2. 6월항쟁-87년 대선-노동자대투쟁을 거쳐 현재의 정치적 현실에 비추어 볼 때 5.3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3. 몇 가지 쟁점

3-1. 노동자 세력의 운동 전면에서의 등장

-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3-2. 운동의 도덕성의 문제

토론4

욕망과 소비의 이중구조
전희식(전 인천노동자운동연맹
조직원)

<발제문 - 인천 5.3민주항쟁 30년을 되돌아보다>

욕망과 소비의 이중구조

전희식

- 농부
- 전 인노련 조직원
- '아름다운 후퇴' 저자
- 녹색당 농업위원장

기억의 향방

우리가 나중에 오늘, 2016년 4월 29일을 어떤 날로 기억할지 궁금하다. 나는 5.3 민주항쟁 30주년 기념 심포지엄과 겹쳐서 가지 못한 행사가 안타깝게 떠오를 것 같다. 지금 이 시간에 농업진흥청 앞에서 지엠오 벼 재배를 반대하는 농민집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단체와 지역단체, 생명단체와 생협단체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주식인 벼의 유전자조작 재배를 시도하는 정부와 농진청을 규탄하는 행사다.

기억은 객체이고 현재가 주체인데도 현재를 지배한다. 기억은 미래의 나 침반이기도 하다. 역사란 기억의 전쟁이라고 해도 된다. 미래를 열어가는 전쟁이다. 5.3에 대한 기억도 그렇다. 5.3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도 미래를 놓고 다투는 전쟁이다. '사태'로 기억하는지 '민주항쟁'으로 기억하는지는 서로 크게 다르다. 재야단체의 기억과 보수 정당의 기억도 서로 다르다. 발제를 하신 두 분 선생님이 기억과 나의 기억도 다르다. (사실 토론자는 발제자와 좀 다른 얘기를 해야 토론회의 맛이 산다)

이 자리에서는 최대한 전 인노련 조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정치적 되새김보다는 개인적 삶의 궤적을 축으로 살펴본다.

파편들의 집합

5-3의 기억은 단방향이지 않다. 돌이켜보면 나의 **한정된 조직관계와 제한된 시야**가 먼저 떠오른다. 내가 소속된 조직과 그 활동은 내게 온 세상이었다. 문건과 지침은 맹신도의 경전과 교주였다. 내 눈과 귀는 그것만 쫓았기 때문이다. 하루의 모든 시간과 관심은 초긴장의 수배생활에 얹혀 조직의 방침과 활동에 매달리게 했다.

또한 내게 **5-3은 공포와 허둥댐이다**. 말도 못하게 무서웠다. 내가 맡은 역할 자체에서도 그러했지만 그런 장면에 직면한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군중심리와 관행으로 무너지기 전에는 누구나.

무지막지한 **폭력이 난무하는 현장이 참 무서웠다**. 그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 더 한 폭력으로 자신을 무장했던 기억이다. 눈앞에서 목격한 참혹함은 내가 연출하고 기획한 무대의 일부라는 생각을 해 본다. 내가 폭력이 되어야 비로소 폭력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은 큰 비참이다.

새로운 영역으로의 이전. 그렇다. 5-3은 우리 운동과 조직, 나 자신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간 전환점 역할을 했다. 그것이 계획적이든 운동조직의 유기체적 본성이든. 나는 인노련을 떠나 지하 전위조직으로 들어갔고 인노련은 모진 탄압과 달라진 운동지형 앞에서 소멸되어 갔다.

그냥 **애잔함과 미안함도** 있다.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세상에서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노동자들과 청년학생들을 떠올리면 참 애잔하다. 그 현장에 내가 다시 서더라도 절대 외면할 수 없는 모습들이다. 물론 그때처럼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구호를 외칠 수는 있어도 가슴에 품는 꿈과 희망은 다를 것이다.

우리 인노련이 인천시민회관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던 민통련을 방해해서 미안하다. 집회장을 쑥대밭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수배 중인데도 집회장에 특공대 요원처럼 잠입, 출현하여 일장 연설을 하던 장기표씨를 비롯 민통련에게 조롱을 퍼 붓던 기억이 못내 부끄럽다. 양김과 신민당을 떠올려도 그렇다. 잔칫상을 뒤집어엎은 꼴이니 말해 무엇하랴.

몇 가지 편차

발제하신 두 분 선생님은 아마 인쇄된 유인물과 출간된 책자나 자료집을 두루 섭렵하셨으리라 본다. 기록과 인쇄의 한계가 있다. 서노련, 인노련 관계다.

노동자 유인물은 <서노련/인노련>이라 표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서노련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다 붕괴된 상태여서 5·3 투쟁은 인노련이 전담했다. 명의만 공동이었고 조직, 돈, 역할 모두 인노련이 감당하고 서노련은 준비모임에도 전혀 나올 수 없는 상태였다. 서중석 선생님 글에 등장하는 민통련과 무슨 합의를 했다는 '서노련'은 5·3의 조직투쟁과는 무관한 듯하다. 현장의 방침은 일관되게 집회가 아니라 투쟁이었고 주안 공단으로 진출이었다.(물론, 조직의 잔가지들이 많아서 복수의 대외 창구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노동진영이 정치적 요구를 최초로 거리에서 제기한 것은 5·3 한 해 전인 1985년 5월 1일의 메이데이 투쟁이다. 비록 학생운동권 출신 노동자들이 다수였긴 해도 영등포역에서 처음부터 가두투쟁으로 전개한 정치투쟁이었다.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기록이 없다보니 논자들의 언급에서 누락되고 있다.

또한 5·3 이틀 전인 1986년 메이데이 투쟁이 3만이 모여서 '전국 노동운동 협의회(전노운협)' 주최로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열렸고 대대적인 거리투쟁으로 전개된 적이 있다. 5·3에서 노동자의 정치투쟁을 언급할 때 포함되어야 할 전사들이다.

5·3을 재야·학생·노동자의 정치투쟁과 신민당이라는 정당의 역학관계에서 조망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정당 시선으로만 정치사건을 보고 기록으로만 역사를 살펴보면 한계가 있다. 기억이 소멸되기 전에 기록 이전의 기억들을 연구 할 필요가 있다. 기록으로 담기지 못한 술한 기억들.

5·3을 단기적·정치적 슬로건으로 살펴본다면 실패한 투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실패/성공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볼 필요도 있다. 역사는 실패와 성

공의 구분을 두지 않는다. 그냥 흘러간다.

평가보다는 '지극한 바라봄'

모든 역사는 '오늘'을 만들기 위해 위대한 발걸음을 옮겨 갈 뿐이다. 지난 역사의 어느 지점을 '실패'로 규정하면 '지금 여기'와 '나'는 존재 할 수 없다. 시간여행의 역설이다.

에릭 브레스 감독의 <나비효과>는 그것을 잘 보여준다. 어린 시절의 꿈쩍한 기억에 시달리는 에반. 에반은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어릴 적부터 매일매일 꼼꼼하게 일기를 쓴다. 그 일기가 과거로 가는 비밀통로가 된다. 일기장 해당 날짜의 해당 사건을 읽기만 하면 그때 그 장소로 간다. 에반은 과거를 고치기 시작한다. 아픈 과거의 상처들을 고쳐나간다. 그러나 어쩌랴. 과거를 바꾸니 오늘의 현실이 더 충격적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다.

이 영화는 오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메시지로 읽히는 영화다. 오늘의 나는 과거 모든 순간들의 총합이라는 가르침이다. 과거 어느 한 부분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두는 한 덩어리로 오늘의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5.3을 실패나 성공, 과격, 대중과 유리, 노동자의 정치성 부상 등의 진단에서 시작하여 잘잘못으로까지 나아가기보다 '지극한 바라봄'에 충실 할 필요가 있다.

물줄기를 모아내면서도 새로운 물꼬를 만드는 저수지를 연상하면서. 또는 용광로.

오늘의 역사와 소명

최류탄 가스가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자욱했던 30년 전 이곳에 뭔가를 위해 모여 들었던 집단들 하나하나를 떠올려본다. 김동춘선생의 글에 등장하는 '박계동'이라는 이름의 이력도 되새겨본다. 장영달도. 그 외 여러 이름들.... 이미 다들 그림자다.

자본주의의 극단적 고도화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기득권층의 지배전략

이 바뀌었다고 한다. 행동과 의식 이전의 인간욕망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욕망과 소비를 장악하면 물질 토대도 장악한다. 유물적 사관에서 놓쳤던 부분이다. 내게 민주와 항쟁이란 단어가 거울 속 풍경 같다. 그런 용어가 주는 달콤한 마취를 안다. 민주는 개인의 소비욕구에 밀려났고 항쟁은 개인의 욕망 뒤에 숨었다.

자본은 인민의 욕망을 지배할뿐더러 인민의 욕망을 창출하는 지경에 가 있다. 지엠오는 거대한 욕망이다. 한국정부가 세계최고의 지엠오식품 수입국이다. 세계 최고의 무기 수입국이기도 하다. 이제는 세계최고의 지엠오 재배국이 되려고 시도한다. 팽창하는 자본주의적 욕망은 스스로 터질 때까지 팽창을 멈출 줄 모른다.

5.3도 그 주역들의 욕망과 함께 욕망의 소비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5.3 이후 30년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5.3은 무엇이었나. 인간은 무엇인가.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5.3의 30년 역사는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고 소비중독에서 벗어날 과제를 인식함으로 비로소 완성 될 듯싶다. 칼폴라니가 말하는 <거대한 전환>이다. 그는 '전혀 도달할 수 없는 적나라한 유토피아'를 벗어나라고 했다. 생태, 생명, 평화, 농사, 후퇴, 행복의 삶이 아닐까 한다.(끝)

5.3민주항쟁 전후 투쟁 일지

- 1980. 05. 광주민중항쟁
- 1982. 03.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 1982. 11. 원풍모방노동조합 해체
- 1984. 09. 민청련 결성
- 1984. 03.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창립
- 1984. 09. 함평.무안농민대회
- 1984. 11. 19. 인천사회운동연합 결성
- 1984. 11. 인천지역노동자복지협의회 결성
- 1985. 02. 12. 총선에서 신민당이 다수표 획득
- 1985. 03.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결성, 신정동 목동 철거민 시위
- 1985. 04. 16. 대우자동차 임금인상 요구 파업
- 1985. 05. 23. 미문화원 점거 시위
- 1985. 06. 24. 구로지역 대우어패럴 등 7개 사업장 동맹 파업
- 1985. 08. 25.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결성

1986년

- 01. 전두환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불가 방침을 밝힘
- 02. 04. 서울대에서 15개 대학 1천여명이 '파쇼헌법철폐투쟁 및 개헌서명운동추진본부 결성식' 개최
- 02. 07.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인노련) 결성
- 02. 12. 신민당과 민주협 '직선제 개헌을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 시작
- 03. 05. 민통련(23개 단체)과 민주인사 303인 '군사독재 퇴진촉구와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범국민적 서명운동 선언' 발표
- 03. 11. 신민당은 '개헌추진위원회 서울지부 결성대회'를 시발로 '개헌

헌판식대회' 추진.

- 03. 30. 광주 개헌대회에 30여만명의 시민 집결. 각 대학교수 시국선언문 발표
- 03. 17. 신흥정밀 박영진 분신
- 04. 28. 서울대생 김세진 이재호, 전방입소훈련 거부 시위 중 "양키고 흠" "반전반핵" 외치며 분신
- 04. 30. 전두환 정권은 청와대 3당대표 회동에서 국회가 합의한다면 임기 내 개헌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발표
- 05. 03. 인천 5.3시위
- 05. 06. 보안사, 김문수 등 서노련 활동가 6명 불법연행
- 05. 10. YMCA중등교육자협의회 산하 교사 546명, '교육민주화선언' 발표
- 05. 30. 서.인노련 소속 노동자 16명 한미은행 영등포지점 점거농성
- 06. 6~7. 권인숙이 부천서에서 5.3사건 수배자 소재 밝히기를 요구받으며 성고문 당함
- 06. 03. 서.인노련 간부 1명 구속, 3명 긴급수배
- 06. 21.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합의
- 07. 03. 인천 해고노동자 권인숙, 부천서 문귀동 경장을 강제 추행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
여성단체연합 성고문대책위원회 발족
- 07. 16. 검찰, 부천서 성고문 사건 근거 없다고 수사결과 발표
- 08. 16~23. 부평 소야전기(주) 노동자 150여명 '임금인상' '보너스 400% 지급' 등을 요구하며 식당점거 농성
- 08. 31. 전YH노조원 주최로 영등포성문밖교회에서 개최하려던 '김경숙 추도식'이 경찰 방해로 무산됨
- 09. 6. 월간『말』 특집호 「보도지침」 발간
- 09. 20~10. 05. 제10회 서울아시안게임 개최
- 10. 17. 검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의 국시는 반공보다 통일"

- 이라고 발언한 신민당 유성환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10. 18. 전국노동자연맹추진위(전노추) 구성혐의로 7명 구속, 107명 수배
10. 19. 영등포 성문박교회에서 500여명 참가해 '박영진열사추모사업회' 결성 집회 개최
10. 20. 경찰, 구국학련의 상부조직 '노동해방전선' 적발 발표
10. 24. 소위 마르크스.레닌당 결성 기도사건 발표
10. 28. 건대사건, 총연행자 1,525명, 구속자 1,295명
11. 26. 정부, 북한의 금강산담 위협에 대응한다며 평화의 담 건설 발표
11. 29. 서울개헌대회, 경찰봉쇄로 무산, 산발적 가두시위로 2,200명 연행
11. 30. 고 전태일의 16주기 추도식을 마석 모란공원 묘지에서 300여명이 참가해 거행

1987년

01. 14. 서울대생 박종철,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물고문으로 사망
03. 01. 인천지역 노동자 1천여 명이 부천 석왕사에서 3.1절 집회 뒤 부천역에서 가두시위
03. 27. 인천 세진음향, 임금인상 요구 가두시위
04. 13. 4.13호헌조치
04. 23. 인천 경동산업 노동자 일당 1,350원 인상, 보너스 400% 지급, 가족수당 10,000원 지급 요구하며 투쟁 돌입
04. 27. 한국노동조합총연맹, 4.13호헌조치 지지 성명 발표
05. 01. 신민당 탈당위원이 통일민주당 창당(김영삼 총재)
05. 03. 부평 샘터교회에서 인천 기노련 주최로 노동자 학생 400여명이 메이데이 행사 주최.

- 05. 06. 서울지역 23개 대학 대표들이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서대협) 결성
- 05. 27.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발족
- 06. 11~19. 신호수(1962. 1생)가 인천 가스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서울 서부경찰서 대공과 소속 경찰에 연행당해 고향인 전남 여천 대미산 중턱의 동굴에서 시체로 발견됨
- 1987. 06. 6월민주항쟁
- 1987. 07~09. 노동자대투쟁
- 1987. 한국여성연합 '올해의 여성상' 수상자로 권인숙 선정

- 1989. 대법원, 문귀동에게 징역 5년, 위자료 지불 판결
- 1993. 권인숙의 가해자 문귀동 5년 만기 출소
- 1989. 대법원이 문귀동에게 징역 5년, 위자료 지불 판결
- 2002. 09. 04. 인천지역 민족민주열사 합동추모제(이후 매년 진행)
- 2003. 05. 02. 5.3민주화운동기념사업추진위원회 토론회, 「5.3운동의 역사적 재조명」
- 2006. 05. 03. 인천 5.3민주화운동 20주년 기념 토론회 「5.3에서 미래로」와 추모제<끝>